

南海 島嶼地域의 民家特性에 關한 研究 - 곤리도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 in the Village 'Kolli-do'

백영흠*

Baek, Yeong-Houm

정준현**

Jeong, Jun-Hyun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 in 360 years historical village "Kolli", Tongyeong city,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tudy on the history of house in Korea. The survey was enforced at the July 21-22, 1998 firstly, and was enforced at the August 18-20, 2002 secondly. The major result are as follows; The most folk houses faced of north according to the factors of configuration of the ground and climates. The arrangement of house were laid out freely without definite types. The house form is hipped roof of slate and most '—' shape of 3 bay structure.

Keywords : Spatial Characteristics, Folk House, Kolli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마을의 배치형태나 살림집의 배치·평면유형 등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과 문화적 속성에 따라 각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지역의 문화권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남해도서 지역에 대한 민가는 일부 지역¹⁾을 대상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이 지역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농어촌의 주거형태는 70년대 새마을운동과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변화가 관주도의 일률적인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고유한 주거형태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농어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서 현대식 주택의 선호가 높아져 주거형태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간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을의 전통적인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농어촌 마을에 대한 전통적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의 개척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섬마을 중에서 비교적 전통적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곤리마을²⁾을 대상으로 전통 민가의 특성과 마을의 공간구조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전통문화의 연속성을 바탕

1)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 도서지역)」을 기초로 하여 김선배(1984)의 “남해도서지역 민가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 박물관(1989)의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조사보고서, 백영흠 외3(1994)의 “한산도 지역의 주거공간 구성체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조명하기엔 아직 미비한 단계라 본다.

2) 이 지역은 월간조선(1983년 3월호)에서 “한국의 섬”으로 소개된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와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1998)의 「한국의 전통마을⑧」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조사 연구된바 있다.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디자인학과 교수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2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으로 한 주거환경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곤리도(昆里島)는 고니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섬의 모양이 흡사 고니새가 비상하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곤리도는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에서 서남방으로 1.85 km의 뱃길로 들어간다.

조사대상지역인 곤리마을은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이다. 그러나 이 마을도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되면서 마을의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에 대한 의미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어 머지않아 전통적인 주거형태도 사라져 버릴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볼 때 남해 도서지역의 민가 특성을 논하는데 있어 곤리마을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마을의 형성배경과 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대표적인 민가를 실측 조사하여 이 지역 민가의 구성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1998년 7월 21-22일에 걸쳐 1차 조사를 한바 있으며, 2002년 8월 18-20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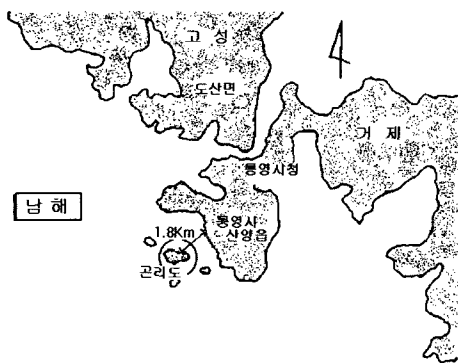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마을의 위치

II. 마을의 형성배경과 공간적 특성

1. 마을의 형성배경

곤리섬에 사람이 살게 된 시기는 임란이후 신미년

이라고 하는데 이는 1641년(조선 인조 19년)에 해당되며, 이 연대는 김해김씨 종손인 김기석씨의 11대 조상이 이 곳에 처음 입향하였다는 구전과도 거의 일치되어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 이 섬에는 사람이 살아왔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 마을의 형성배경을 자연·지리적, 인문·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내용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자연·지리적 배경

곤리도는 한반도의 남단에 해당하며 북위 34도 47분, 동경 128도 23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0.96 km²인 작은 섬이다.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4.5°C이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적으며 연중 온화하다. 이 지역은 다우지역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1,455 mm이나 곤리도는 식수문제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연평균 2~3회의 상습적인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다³⁾.

곤리마을은 해발 200 m의 북쪽 봉우리 아래 경사 30도의 경사지에 민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의 향은 북쪽의 육지를 향하고 있다. 이는 남해 바다의 북풍을 피하기 위해 섬 북쪽 경사진 자락에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자연·지리적 환경조건이 마을의 향과 주거의 배치 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민가는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이며, 이는 70년대의 주택개량사업과 80년대의 도서개발 계획 등에 의하여 초가지붕에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선착장 마을 입구 주변으로는 현대식 주택이 늘어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림 2. 곤리도의 형상과 마을의 위치

3) 통영시(2001), 「통영통계연보」, p.38

2) 인문·사회적 배경

곤리도에는 현재 134세대의 382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⁴⁾. 이 섬에는 처음 입향한 김해 김씨에 의하여 마을이 형성되면서 현재는 동성마을의 성격을 띄고 있다. 현재의 성씨분포를 보면 김해 김씨가 전체 가구수 120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주 이씨 6호, 나주 나씨 5호로 동성마을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김해 김씨만이 결속하여 타성을 배타하는 의식은 별로 없는데, 이는 통혼이 주로 섬 안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주민들 간에는 인척과 외척의 관계로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마을 뒷산에는 김해 김씨의 상징물인 제각이 있어 조상과 후손간의 위계질서와 계통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륙의 동성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 공간의 위계적 질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섬마을의 지형적 조건과 주민들의 경제적 한계성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가구가성은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성격이 강하다. 가구원이 5~7인 가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46.6%), 다음으로 1~2인 가구가 25%이다. 이는 대부분 자식들이 물으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가구로서 농촌 지역과 유사한 가족형태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경제적 배경

주거형태는 그 지역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전체환경 속에서 생활에 유효한 경지면적이 마을의 규모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의 규모 및 생활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낙도는 반농·반어의 생업형태를 띠게 마

표 1. 곤리마을의 가구원 구성비

| 가구구성 | 분포 (가구) | 구성비 (%) |
|----------|---------|---------|
| 1-2인 가구 | 29 | 25.0 |
| 3-4인 가구 | 28 | 24.1 |
| 5-7인 가구 | 54 | 46.6 |
| 8-10인 가구 | 5 | 4.3 |
| 계 | 116 | 100 |

(1998년 7월 조사자 통계, 미확인 4가구)

4) 앞 책, p.49

련인데 곤리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가의 비중이 47.5%이며 농가는 38.3%의 구성비를 보인다⁵⁾<표 2 참조>. 그러나 농가는 지리적 환경으로 전답의 면적이 작고 농토의 비중이 전(田)이 높아 영세농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곤리주민들은 대부분 어로작업에도 참여하는 반농반어의 생업형태⁶⁾를 지닌 겸업 어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양식어장이 확대되면서 어로작업의 비중이 커지고 또한 마을의 경제력도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력의 향상으로 이 섬에도 재래 민가는 점차 줄어들고 현대식 주택⁷⁾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민가도 생활에 편리하도록 많이 개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민속문화적 배경

도서 지역은 대부분 다양한 민속적 내용이 생활화하여 왔다. 특히 민간신앙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정신적인 지주로 마을신에 대한 지극한 신앙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곤리 마을도 예외가 아니다<표 3 참조>.

곤리마을의 대표적인 민속신앙 중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제만’과 ‘별신굿’이 있다. 제만은 매

표 2. 농·어가 분포 및 전·답의 구성비

| 농·어가 분포 | 구분 | 가구수 | 구성비 (%) |
|---------|----|-----|---------|
| | 농가 | 46 | 38.3 |
| | 어가 | 57 | 47.5 |
| | 기타 | 17 | 14.2 |
| 계 | | 120 | 100 |

| 전·답 분포 | 구분 | 면적(km ²) | 구성비(%) |
|--------|----|----------------------|--------|
| | 전 | 28.0 | 25.8 |
| | 답 | 4.8 | 4.4 |
| | 임야 | 67.1 | 61.9 |
| | 기타 | 8.5 | 7.8 |
| 계 | | 108.4 | 100 |

5)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1988), p.53

6) 이상정(1982)은 “어촌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어촌의 생업형태를 ‘전업어가’, ‘겸업어가’, ‘겸업농가’, ‘도시형어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볼 때 곤리 마을은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겸업어가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다.

7) 현재 마을 전체 주택 120호 중 일부 개량주택을 포함한 현대주택이 40호(33.3%)이며, 이는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표 3. 주민의 주요 제의력

| 구분 | 명칭 | 시기 및 의미 | 장 소 |
|----------|------------|-------------------------------|-----------------------|
| 마을 신앙 | 제만 | ·매년 3월 초순 ·풍어제의 | 마을 앞 벼수거리 |
| | 별신굿 | ·3년 주기(10월 초순) ·마을의 안녕과 풍어 | 당집→포구나무→ 벼수거리로 옮겨짐 |
| 가신 신앙 | 안택제 | ·매년 정초 ·안택 및 어업 풍요 기원 | 장남의 집 |
| | 할망네 | ·2월 초,중순 ·안택 및 생업 풍요 | 장남의 집 |
| | 용신제 | ·6월 첫 진일 ·농신제의 | 장남의 집 |
| | 부리단지 고사 | ·10월 중 택일 ·농신제의 | 장남의 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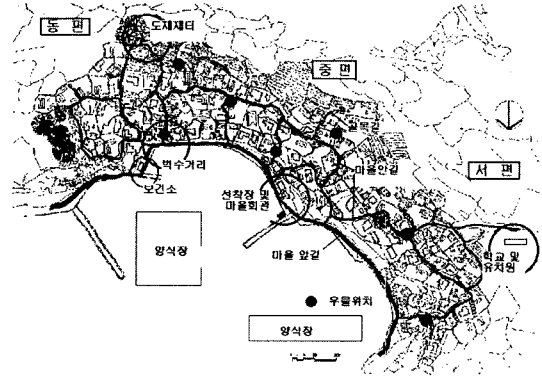


그림 3. 마을 길체계와 공간구성

년 3월 초순에 시행되며 풍어제의로서 마을 앞 벼수거리에서 행하여 진다. 그리고 3년마다 한번씩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던 ‘별신굿’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매년 지내던 ‘제만’이라는 마을제사도 ‘별신굿’이 없어지면서 이를 통합하여 3년마다 한번씩 행하고 있다.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마을 앞 벼수거리가 중심이 되며, 현재도 그 장소는 신성시되어 마을의 상징적 중심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 마을에 남아있는 가신신앙은 안택제와 할망네, 용신제, 부리단지고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의는 장남집에서 주로 행하여지며 그 이미는 안택과 어업 및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일부 민가에서는 가신신앙의 신체인 ‘부리단지’ 등이 주거공간의 일부에 모셔지고 있어 그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마을의 공간구조

관리마을은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동쪽을 ‘동편’, 중앙부분을 ‘중편’, 서쪽부분을 ‘서편’으로 주민들이 부르고 있다.

마을의 길 체계는 마을 앞 선착장을 중심으로 방파제를 따라 마을 앞길이 형성되고 그 위로 마을 안길이 그물망 모양을 이루고 있다. 마을 안길과 골목길은 대부분 가파른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폭은 한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다. 이는 민가가 대부분 30도의 경사지에 자리함으로써 경사면과 능선을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부정형의 골목

길 체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의 공간구조는 동편이 민속적 공간, 중편이 사회적 공간, 서편이 교육적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편에는 장승과 솟대가 있는 마을 수호신의 거리인 ‘벼수거리’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마을굿인 ‘제만’과 ‘별신굿’이 이루어진다. 또한 동편 언덕배기에 수령 500년의 포구나무가 있으며, 이곳에서 매년 음력 3월에 마을제사가 행하여지며, 이 곳을 ‘도재제터’라 하여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장소이다. 마을의 중앙부분인 중편에는 육지와 출입이 이루어지는 선착장과 마을 회관이 위치하여 마을의 사회적 공간성을 띠고 있다. 마을 서편 언덕 위에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양초등학교 곤리분교와 유치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교육적 공간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마을에는 8개의 공동우물이 있다. 그러나 수량이 적어 주민들은 식수난 해결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벼수거리’에 있는 마을공동우물에서는 별신굿이 있을 때 물을 관장하는 용신을 위해 ‘샘굿’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마을의 공간구성은 민속적인 공간과 사회적 공간, 교육적 공간의 성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민속적 내용은 곤리 마을의 공간구성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III.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

1. 주거공간의 배치

일반적으로 주택의 배치는 자연환경에 따른 대응, 생활내용, 내·외부생활의 공간활용, 프라이버시유지,

경제적 규모 및 필요한 건물의 동수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민가의 배치는 좌향을 중요시하였는데, 좌향은 그 건물을 집터에 앞힘으로써 생기는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향이 결정되어 지며 일반적으로 남향을 선호하여 왔다.

그러나 곤리마을의 민가들은 북쪽의 육지를 바라보며 고니의 날개형상으로 길게 펼쳐진 등고선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주택의 향과 대문의 향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향을 따라 북향 또는 북동향, 북서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⁸⁾. 이러한 현상은 내륙의 민가가 남향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기후적, 지형적 조건이 주택의 좌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곤리마을은 집을 지을 대지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주택의 배치는 경사면을 따라 한정된 대지조건에 순응하면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유롭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배치유형별 분포는 <표 4>과 같은데, 'ㄱ' 자형의 배치가 43채(43.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一' 자형이 21.8%, '二' 자형이 16.1%, 'ㄷ' 자형이 12.7%의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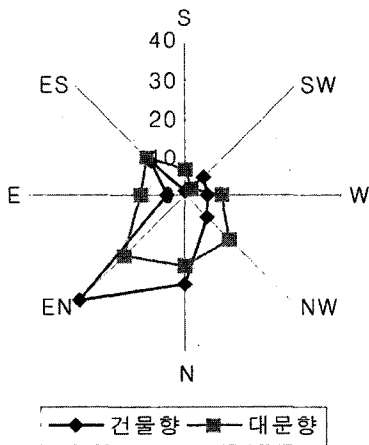


그림 4. 주택의 향과 대문의 위치

8) 한산도 지역의 민가 배치에 있어서도 지리적 환경조건에 따라 곤리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백영흠·손광제·김태연·정준현(1994), “한산도 지역의 주거공간 구성체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제9집, pp.31-39)

<그림 5>는 'ㄱ' 자형 배치의 한 예이다. 3칸 규모의 안채를 남서향으로 하고, 안채에서 바라다 보이는 향으로 대문을 두었다. 아래채는 동쪽으로 자리하여 'ㄱ' 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치유형은 대지의 한계성과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배치유형으로 이해되어 진다.

표 4. 배치유형 및 분포

| 구분 | 배치형태 | 규모 | 빈도(%) | 계(%) |
|-------------------|------|----|----------|-----------|
| '一' 자형 | | 3칸 | 11(12.6) | 19 (21.8) |
| | | 4칸 | 8 (9.2) | |
| '二' 자형 | | 3칸 | 9 (10.3) | 14 (16.1) |
| | | 4칸 | 5 (5.7) | |
| 'ㄱ' 자형 | | 3칸 | 30(34.5) | 43 (49.4) |
| | | 4칸 | 12(13.8) | |
| | | 3칸 | 1(1.2) | |
| 'ㄷ' 자형 | | 3칸 | 3(3.4) | 11 (12.7) |
| | | 4칸 | 4(4.6) | |
| | | 3칸 | 2(2.3) | |
| | | 4칸 | 1(1.2) | |
| | | 3칸 | 1(1.2) | |
| 범례: 안채 아랫채 문간채 | | | | 87(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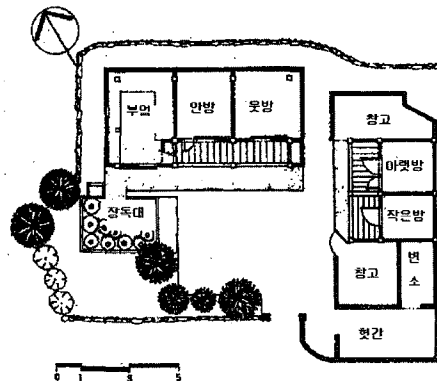


그림 5. 'ㄱ'자 배치의 예 (장○○ 가옥)

2. 평면유형 및 사례분석

1) 평면유형

곤리마을의 민가는 우진각 슬레이트지붕을 이은 3칸 규모의 일자형 건물이다. 평면유형은 인근 도서 지역에 비해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지리적 특성상 규모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기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 안채와 아랫채의 평면유형은 <그림 6>과 같다.

안채의 경우는 3칸 규모와 4칸 규모로 구분된다. 3칸의 평면은 좌로부터 정지, 큰방, 작은방을 연결시킨 후 전면에 반칸 규모의 퇴간을 둔 형태를 기본형으로 볼 수 있다. 간혹 정지의 위치가 우측간에 오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정지간도 반칸 정도를 확장하여 찬장과 고방을 두는 경우도 있다. 4칸의 경우는 3칸 규모에서 방이 하나 더 늘어난 경우와 통간으로 이루어진 '마루방'이 있는 유형이 있다. 특히 '마루방' 있는 평면유형은 남서해 도서지역의 일반적 평면 구성⁹⁾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도서지역에서도 농업이 추가되는 민가에서는 곡물류를 보관하는 고방의 기능과 내륙 민가의 마루의 기능과 유사한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아랫채는 방으로만 구성된 2칸 규모의 별채도 일부 있으나, 정지와 방 2칸 혹은 도장방, 헛간, 방으로 구성된 3칸 규모가 일반적이다. 또한 드물게 헛간과 방 3칸으로 구성된 4칸 규모의 아랫채도 있다. 이처럼 아랫채의 평면 구성이 안채에 비해 다양한 것은 안채가 3~4칸 규모로 한정됨에 따라 공간의 확장성이 채의 문화로 이루어지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공간들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주택은 퇴간의 좌측면에 반침이 설치되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장간'이라 칭하는 수납공간이다¹⁰⁾. 정면의 문비는 미서기문과 외여닫이문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미서기문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면의 문비 옆에는 작은 불뿔이창인 '퇴창'을 설치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퇴창'은 주로 남해안이나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지

역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정지의 측벽이나 온돌방의 측벽을 담장까지 확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제한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리고 퇴간의 전면에는 평상을 놓아 퇴간을 확장시켰으며, 지붕의 끝에는 퇴간의 햇볕을 조절하기 위해 슬레이트로 차양을 덧대었다.

2) 사례분석

(1) 사례 1(곤리 63번지)

<그림 7>은 곤리마을의 민가 중 안채 1동만으로 이루어진 3칸규모의 '—' 자형 주택이다. 이 주택

| 구분 | 칸수 | 평면유형 |
|-----|----|------|
| 안채 | 3 | |
| | 4 | |
| 아랫채 | 2 | |
| | 3 | |
| | 4 | |

그림 6. 안채와 아랫채의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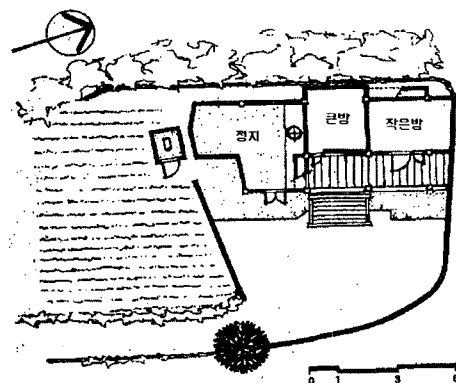


그림 7. 김OO씨 가옥 평면도

9) 목포대학 박물관(1989), pp.99-103

10) 신영훈(1972)의 경상남도 도서지역의 주생활조사에서 이 지역 민가의 구성적 특성으로 '장간'을 언급한 바 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 도서지역)」, pp.540-556)

은 마을 중편 위쪽 언덕배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좁은 대지의 제한적 조건에 적절히 순응하여 동향으로 자리잡은 주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평면은 좌로부터 정지 1칸과 큰방, 작은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작은방의 우측면은 담장까지 확장하여 방의 외벽이 담장을 겸하고 있으며, 큰방 뒤로는 블록으로 벽장을 달아내었다. 작은방의 뒤에는 벽장의 상부에 신주를 모셨다. 정지는 원래 한칸이었으나 블록으로 확장하였다. 큰방 앞 퇴간에는 '장간'을 두었으며, 큰방과 작은방의 문 좌우측에는 '퇴창'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민가 기본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2) 사례 2 (곤리 120번지)

마을 서편으로 난 가파른 계단 골목을 올라가면 중턱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아랫채의 우측면에 대문이 있으며, 대문 우측으로 들어가면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아랫채와 마주보며 안채가 자리잡아 'ㄱ'자형의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안채의 형상은 이 마을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우진각 슬레이트지붕을 이은 3칸집이다. 평면은 정지, 큰방, 작은방을 연결시키고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다. 큰방과 작은방의 전면에는 외쪽의 미서기문을 달았고, 큰방문의 좌측에는 퇴창을 설치하였으며, 큰방 앞 퇴간 좌측에는 장간을 두었다<사진 1의 a) 참조>. 그리고 작은 방에는 시령을 만들어 그 안에 민속신앙적 내용의 신체를 모시고 있다<사진 1의 b) 참조>. 아랫채는 4칸 규모인데 평면은 대문칸과 온돌방, 창고, 변소칸으로 구성하였다. 아랫방의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으며 방

앞에는 미서기문을 설치하였다. 창고 뒷편에는 마굿간을 두었는데 그 입구를 담장밖에 두었다. 이는 마당이 좁은 탓도 있으나 마을에 도둑이 없는 관계로 입구를 외부에 두었다고 한다.

3) 사례3 (곤리 162번지)

<그림 9>는 안채와 아랫채가 'ㄱ'자형을 이루는 3칸 규모의 주택이다. 안채는 우진각 슬레이트집인데 전면의 처마 끝에는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퇴간에 햇볕이 덜 들어오도록 슬레이트로 차양을 덧대어 두었다. 평면은 정지와 온돌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지는 좌측 담장까지 확장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였다.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으며, 전면의 문비는 각 칸마다 외쪽의 미서기문을 달고 안방문의 좌측에는 퇴창을 설치하였다. 뒷마루 좌·우 양측에는 장간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랫채는 블록조의 건물로 평면은 아랫방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와 아랫채 사이의 기단위에는 문짝을 하나 달아 뒷공간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a) 퇴창 및 장간 b) 신체유형

사진 1. 400씨 가옥 전경 및 민간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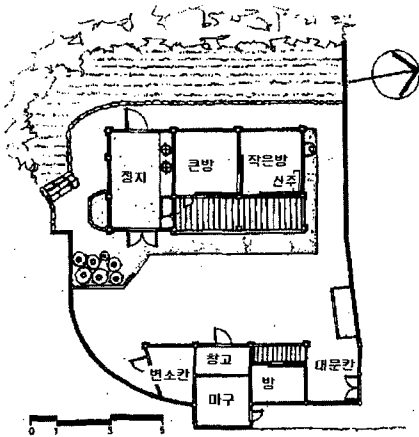


그림 8. 400씨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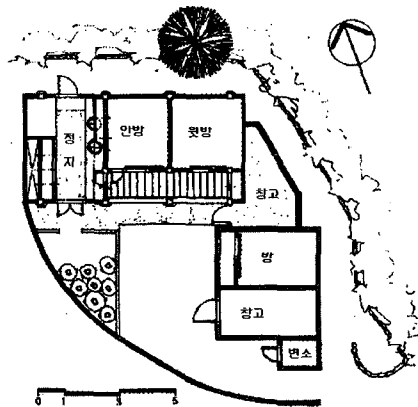


그림 9. 김00씨 가옥 평면도

4) 사례4 (곤리 238번지)

정면 좌측으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가 정면하여 자리잡고 있고 안채의 우측과 전면에는 각각 아랫채를 두어 전체적으로는 ‘ㄷ’ 자형의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는 3칸 규모의 우진각 슬레이트집인데 평면은 좌측에 1칸 규모의 정지를 두고 우측에는 2통간으로 이루어진 큰방이 연결되어 있다. 큰방의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으며, 퇴간 앞에는 평상을 놓아 퇴를 확장시켰다. 전면의 문비는 각 칸마다 외곽의 미서기문만 설치하고 퇴창은 설치하지 않았다. 아랫채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3칸 규모의 우진각 슬레이트집인데, 평면은 좌로부터 창고, 아랫방, 헛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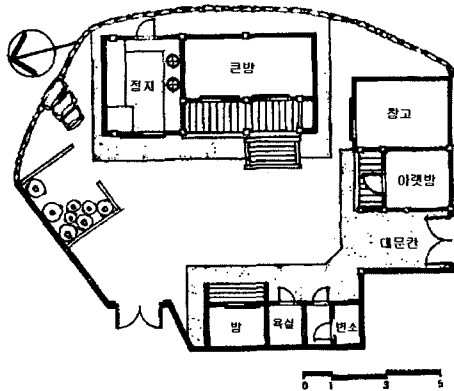


그림 10. 김○○씨 가옥 평면도

5) 사례 5(곤리 291번지)

<그림 11>은 이 마을 민가 중 ‘ㄷ’자형 배치의 한 예로, 마을 동편의 도재채터 옆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대지위에 집을 앉혔는데, 안채는 경사면을 뒤로 하여 서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안채의 좌측인 남쪽에는 대문칸 채를, 우측인 북쪽에는 헛간채를 각각 배치하였다. 따라서 안채의 전면 마당은 대지의 제약으로 주택규모에 비해 협소한 느낌을 준다. 안채는 일반적인 3칸집에서 온돌방이 1칸 더 붙은 4칸집이다. 방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으며 좌측의 정지쪽으로 장간을 설치하였고 퇴간 우측에는 양여단이 판문을 달아 외기의 바람과 아랫채의 시선을 차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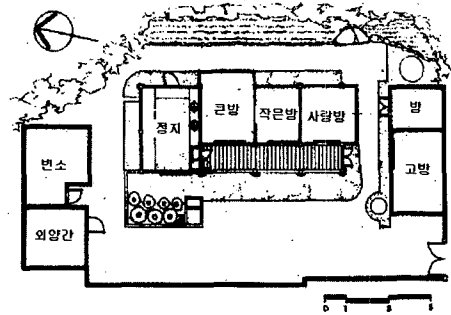


그림 11. 김○○씨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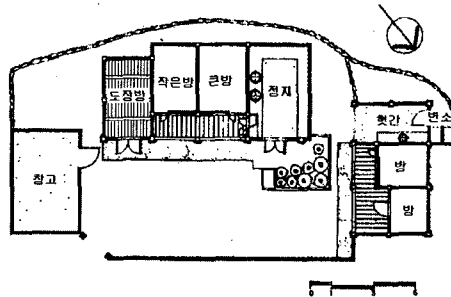


그림 12. 리○○씨 가옥 평면도

기단 앞의 장독대 옆에는 방형의 물통을 만들어 물을 담아 놓았는데, 마을의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아 4일 마다 급수가 되는 관계로 집집마다 이런 형태의 물통이 설치되어 있다.

6) 사례 6(곤리리 127번지)

<그림 12>는 좌측으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정면하여 안채가 자리잡고 있으며 좌측에는 창고를, 우측에는 아랫채를 각각 두어 ‘ㄷ’자형의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안채는 정면 4칸 규모로 이 마을에서는 가장 규모있는 집 중의 하나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도장방, 작은방, 큰방, 정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다. 전면의 문비는 각 칸마다 외곽미서기문을 달았으며, 미서기문의 좌·우측에는 퇴창을 설치하였다. 아랫채는 헛간 1칸과 온돌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돌방의 전면에는 퇴간을 두었는데 우측 컷방 전면의 퇴간은 뒤로 조금 물려 아랫방과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IV. 결 론

곤리마을은 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남해안의 섬마을인데, 최근 들어 주거공간의 변용과 함께 새로운 주거유형이 마을에 혼재되면서 전형적인 전통 마을의 특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곤리 마을의 민가 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가들은 북쪽의 육지를 바라보며 고니의 날개 형상으로 길게 펼쳐진 등고선을 따라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주택의 향도 마을의 향을 따라 북향, 혹은 북동향, 북서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륙의 민가가 남향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기후적, 지형적 조건이 주택의 좌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2) 주거공간의 배치는 섬 전체가 경사진 지형인 까닭에 큰 대지를 마련할 수 없어, 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없이 자유롭게 이루어 졌다.

3) 건물의 형태는 우진각 슬레이트지붕을 이은 3칸 규모의 일자형 건물이 대부분인데, 처마 끝에는 퇴간에 햇볕이 덜 들어오도록 슬레이트로 차양을 덧대어 두었다.

4) 평면은 좌로부터 정지, 큰방, 작은방을 연결시킨 후 전면에 반 칸 규모의 퇴간을 둔 형태를 기본형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퇴간의 좌측면에 반침을 설치하고 퇴간의 전면에는 평상을 놓아 퇴간을 확장시켰다. 또 정지의 측벽이나 운동방의 측벽을 담장까지 확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제한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의도이다.

5) 정면의 문비는 미서기문과 외여담이문을 혼용하였으나 여담이문보다는 미서기문의 수가 우세하였다. 정면의 문비 옆에는 퇴창을 설치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퇴간 좌·우에는 장간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퇴창과 장간은 주로 남해안이나 진라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지역적인 특징이며, 곤리마을도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선배(1984), "남해도서지역 민가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목포대학 박물관(1989),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학 박물관.
3. 박선주·김성우(2000), "서해도서민가의 평면 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호, pp. 45-52.
4. 백영흠·손광제·김태연·정준현(1993), "울릉도 지역의 주거공간 구성체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제8집, pp.141-148.
5. 백영흠·손광제·김태연·정준현(1994), "한산도 지역의 주거공간 구성체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제9집, pp.31-39.
6. 이상정(1982), "어촌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7호, pp.19-27.
7. 주남철(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8. 조성기(1985), 한국 남부지방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신영훈(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 남도편, 도서지역)」,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p.540-556.
10.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1988), 「한국의 전통마을⑧ 고니새 닭은 섬, 곤리도」.
11. 통영시(2001), 「통영통계연보」.